

광주 청소년들, 자매도시 美샌안토니오서 문화 교류

현지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참가
홈스테이 등 문화 다양성 체험
한인김치축제 문화사절단 파견

광주지역 청소년 20명이 자매도시인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를 방문, 청소년·문화 교류를 통해 43년의 굳건한 우정을 다지고 있다.

광주시는 미국 샌안토니오에서 27일부터 11월4일까지 9일 간 미래 글로벌 리더를 육성하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프는 지난해 샌안토니오 청소년과 인솔자 31명이 광주를 방문한 데 이어 상호 교환 프로그램으로 지역 중·고등학생 20명이 광주를 대표해 '청소년 민간 외교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광주 청소년들은 또래 미국 가정에서 홈스테이를 하며 문화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직접 경험한다.

미국 수업 수업을 통한 교육 현장 체험, 멕시코의 문화가 융합된 헬리핀과 죽은자의 날 등 행사 참여, 한국기업 OCI의 미국 본사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넓힌다.

광주시는 이번 교류 기간 샌안토니오 최대 한인축제인 'UTSA (텍사스 주립대학 샌안토니오 캠퍼스) 김치축제'에 광주문화사절단을 파견한다.



광주지역 중·고등학생 20명이 광주시와 자매도시인 미국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시를 방문해 지난 27일부터 11월4일까지 열리는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에 '청소년 민간 외교관'으로 참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29일 (현지 시간) 열리는 'UTSA 김치축제'에 '2023 세계김치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임란 돌담 대표가 참여해 김치 버무리기 과정을 시연하는 등 광주김치의 우수성을 소개한다.

또 조선대학교 실용무용과 학생들이 케이팝(K-pop) 공연을 선보여 현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 예정이다. 청소년 참가자들도 축제에 참가해 광주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등 민간 공공외교 활동을 펼친다.

1982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광주시와 샌안토니오시는 43년 간 청소년·문화·산업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청소년 국제교류캠프와 UTSA 김치축제를 계기로 양 도시 간 시민 교류가 더욱 확대되고 미래세대의 글로벌 감수성과 상호 이해가 한층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현호 국제교류담당관은 "홈스테이, 교과 체험 등 해외 경험에 청소년들에게 값진 성장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국제 무대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교류 기회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여수공항 활주로 연장 등 인프라 개선 건의

전남도, 항행안전시설 등 지원 요청
부정기 국제선 운항 필요성도 강조
금지사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주력"

전남도가 여수공항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해 활주로 연장, 항행안전시설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남도는 28일 "여수공항 활주로를 현재 2천100m에서 2천800m로 연장하는 것으로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기간 중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를 지원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여수공항은 전남 동부권을 비롯해 남해안남중권 관광·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임에도 활주로



여수공항 전경. <전남도 제공>

길이가 전국 공항 중 두 번째로 짧고, 방위각시설(둔덕) 높이는 40m로 가장 높아 안전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항공기 운항 기종이 제한되

고 기상 악화 시 결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공항 운영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이용객의 공항 이용 불안 해소와 안전한 운항환경 조성을 위해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26-2030년)에 활주로 연장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방위각 시설 개선, 종단안전구역 확보, 조류탐지레이더 설치 등 항행안전시설 개선도 요청했다.

특히 30개 국가 300만명 참여를 목표로 열리는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일본·중국 등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부정기 국제선 운항 허가도 함께 건의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여수공항을 남해안남중권 관광과 산업을 아우르는 대표공항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활주로 연장과 안전성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여수공항을 안전하고 신뢰받는 공항으로 만들어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의 성공 개최와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김치축제 기간 '대자보 챌린지'

광주시는 28일 "광주김치축제 기간인 오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대자보 챌린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자보 챌린지'는 '승용차 대신 대중교통·자전거·보행으로 축제장 찾아오기'를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인증한 시민들에게는 현장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민들은 당일 버스·지하철 내에서 본인 얼굴이 나오도록 촬영된 사진으로 도전 성공을 인증할 수 있다.

도보 방문자는 휴대전화 건기 앱의 당일 보행 기록(8천보 이상)을, 자전거 이용자는 타고 온 자전거를 제시하면 된다.

축제 기간 시청 행정동 앞에서 운영되는 '대자보 캠페인 부스'는 매일 부스를 방문해 도전 성공을 인증하는 선착순 300명 (사흘간 900명)에게 기념품을 증정한다.

윤미라 광주전략추진단장은 "축제 기간 교통 체증이나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줄이고 쾌적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챌린지를 마련했다"며 "많은 시민이 광주시 대자보 정책을 가깝게 체감하도록 다양한 방식의 대자보 챌린지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9일 (아부터 11월2일 24시까지 5일 간 시청 앞 도로(시청 정문 사거리-한국은행 후문 삼거리 구간)를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한다. 시내버스도 우회 운행되므로 사전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이용을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도시농부축제 31일 시청서 개막

광주시는 오는 31일부터 11월2일까지 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2025 광주 도시농부 축제'를 개최한다.

'씨앗에서 밥상까지'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전남귀농운동

본부가 주관한다.

광주지역 도시농업 단체들(한국마스터가드너광주지회, 한국원예치료복지협회 광주지회, 한국치유농업협회 광주본부, 한세봉두레, 청소년 삶디자인센터, 도시농업연구소 등)

이 기획 단계부터 축제에 참여했다.

이번 축제에서는 도시농부 밥상 체험, 텃밭 채소로 김밥·화덕피자 만들기, 국화 복주머니 만들기, 식물 영양제 만들기 등 '나도 도시농부'를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활동을 선보인다.

또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생생히 느끼도록 주제 텃밭과 치유 정원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의 철학과 역사를 엿볼 수 있는 토종씨앗·작물·버·쌀

전시, 호미와 옛 그릇 전시, 도시농부 아카이브, 씨앗 나눔 특별전 등 전시회를 진행한다.

배귀숙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최근 도시농업이 치유농업, 반려식물산업까지 확장되면서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며 "방문객들이 '나도 도시농부'라는 마음으로 도시농부들과 소통하고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변은진 기자

